

『素問·五臟生成』의 “人臥血歸於肝”에 대한 고찰 - 肝臟血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¹釜山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韓醫學科 韓醫務碩士過程 大學院生

²釜山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人文社會醫學教室 副教授

卞駿現¹ · 辛相元^{2*}

A Study on the Phrase “*When Lying Down, Blood Returns under the Influence of the Liver*(人臥血歸於肝)” in the Chapter “The Generation of the Five Viscera(五臟生成)” of *Suwen*(素問) - Focusing on Its Relation to the Concept of ‘Liver Stores Blood’

Byun Junhyun¹ · Shin Sang-won^{2*}

¹Graduate Student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Korean Medicine

²Associate professor Dept. of Humanities &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rase “when lying down, Blood returns under the influence of the Liver” from the *Suwen* and the concept ‘Liver stores Blood.’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nature of Blood, we aim to attempt at a more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f the Blood concept.

Methods : Previous studies and theor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rase and the concept were examined generally. Based on the annotation of Wangbing on the *Suwen* chapter ‘The Generation of the Five Viscera’, related chapters in the *Huangdineijing* were analyzed to grasp the meaning of “when lying down, Blood returns under the influence of the Liver” and Liver stores Blood’. Next, their functional relationship was examined.

Result & Conclusions : Previous studies and theories failed to provide accurate meaning of the phrase, “when lying down, Blood returns under the influence of the Liver.” Based on our findings, Blood is operated through the Heart and meridians during activity, and returns to the Liver during inactivity. In this instant, the Liver is not merely a place of storage but functions as a regulating viscera. The phrase “when lying down, Blood returns under the influence of the Liver” symbolizes the transition between the active and inactive state of Blood, while the Liver is the key viscera that mediates this transition. This finding contributes to an integrative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nature of the Blood concept and the difference between ‘stores’ and ‘returns.’ Such understanding had been applied in the treatment of the ‘Heat entering the Blood chamber’ condition in the *Shanghanlun*.

Key Words : when lying down, Blood returns under the influence of the Liver, Liver stores Blood, Sea of Blood, Chong Mai(衝脈, thoroughfare vessel), Heat entering the Blood chamber

* Corresponding Author : Shin Sangwon.

Dept. of Humanities &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si, Gyungsangnam-do, 50612, Republic of Korea.

Tel : +82-51-510-8452, E-mail : shinsangwon@pusan.ac.kr

저자들은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 상충도 없습니다.

Received(Jul 27, 2025), Revised(Aug 14, 2025), Accepted(Aug 15, 2025)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緒論

『素問·五藏生成』에 수록된 “人臥血歸於肝”이라는 문장은 한의학에서 肝의 장상을 구성하는 핵심 기능 중 하나인 ‘肝藏血’의 의미를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중요한 구절이다. 특히 이 문장은 『黃帝內經』의 주석가를 대표하는 王冰이 ‘肝藏血’의 의미와 연관지어 해석한 바 있어, 이 두 명체가 서로 구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대 한의학 이론서나 기준의 관련 연구들은 “人臥血歸於肝”이라는 표현 속에 내포된 ‘臥’, ‘歸’, ‘肝’과 같은 세부 개념 사이의 의미 구조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으며, 이들이 기반하고 있는 의미 연결망을 토대로 생리적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드물다.

이는 더 근본적으로는 한의학에서 ‘血’이라는 개념 자체가 갖는 다층적 의미 구조, 즉 精·氣·神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혈이 어떠한 위상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학문적 상황을 드러낸다. 현대의 한의학 또는 중의학 이론서들은 대체로 血을 물질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이를 서양의학의 ‘혈액(blood)’ 개념과 대응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血 개념은 영양 공급이라는 단순한 물질적 기능으로 환원되며, 精과 같은 선천적 생명력과의 연계성, 공간적 위상 이동을 통한 기능 조절 같은 고유한 한의학적 사유 구조는 간과되고 있다.¹⁾²⁾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단순히 “人臥血歸於肝”的 문장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구절이 내포하는 다층적인 의미관계망 (semantic network)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歸’라는 동사(verb)를 중심으로 血 개념을 고찰함으로써, 그것이 단지 ‘저장되는 물질’이 아니라 ‘순환하는 생명력’으로서 공간적 위치 이동과 기능적 위상 전환을 수행하는 역동적 생리 요소임을 밝히고자 한다. 즉, 血이 단순히 경맥만을 순환하며 몸을 영양하고 소모되는 물질이 아니라, 肝에 의해 血海·衝脈·

子宮 등으로 표상되는 내부 순환 구조 속으로 회귀함으로써 수동적인 저장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능동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한의학 고유의 사유 구조 속에 내재된 개념 간의 의미 관계망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각 개념의 위상과 의미를 재해석하는 연구 방법론의 성립 가능성을 모색하는 하나의 시도이기도 하다. 이는 한의학의 개념들을 물질적 기능으로 환원해 온 기존 해석 방식의 한계를 넘어 한의학의 고유한 사유의 맥락을 복원함으로써 개념들을 본래의 자리에 가깝게 정위시키려는 이론적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血 개념에 관련된 의미 구조와 맥락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려 한다. 먼저 “人臥血歸於肝”과 ‘肝藏血’에 대한 기존 이론서 및 선행 연구의 해석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素問·五藏生成』의 “人臥血歸於肝” 구절 및 그에 대한 王冰의 주석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肝’, ‘歸’, ‘臥’를 주제어로 삼아 “人臥血歸於肝”的 의미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주제어를 연결짓는 의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黃帝內經』의 여러 篇에 나타나는 유관 문장들을 심도있게 탐색할 것이다. 이를 통해 “血歸於肝”에 전제된 『黃帝內經』의 血의 순환 체계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해보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人臥血歸於肝” 및 ‘肝藏血’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血歸於肝”에 대한 인식이 『傷寒論』을 비롯한 후대의 임상 치법에 적용되는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黃帝內經』의 이론적 토대가 실질적인 임상적 함의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本論

1. “人臥血歸於肝” 및 ‘肝藏血’에 대한 선행 연구

우선 “人臥血歸於肝”과 ‘肝藏血’의 의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해석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

1)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동의생리학. 원주. 의방 출판사. 2024. p.141, pp.143~145.

2) 한의병리학 교재편찬위원회 編著. 한의병리학. 서울. 한의문화사. 2017. p.115, pp.129~136.

해 국내외 이론서와 주요 연구 성과를 분석하고, 두 명제가 어떻게 해석되고 상호 연관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해석이 지닌 이론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血 개념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1) 국내외 이론서

『東醫生理學』은 ‘肝藏血’을 “肝은 血을 저장한다”, “人臥血歸於肝”을 “사람이 누우면 血이 肝으로 돌아간다”고 해석하며, 낮 동안 臟腑와 經絡에서 운행되던 血이 밤에는 肝으로 돌아가 저장되고, 다시 아침이 되면 이를 공급한다는 순환 구조를 제시한다.³⁾ 그러나 이 해석은 血이 曝夜에 따라 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며, 血이 운행되는 공간의 실체나 그 전환 구조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중국의 중의기초이론서들은 ‘肝藏血’을 중의생리학의 핵심 개념으로 보고, 이를 혈량 조절과 출혈 방지까지 포함하는 다면적 개념으로 확장하여 서술한다. 첫째, 肝은 근육·눈·사지 등 활동 기관에 血을 분배해 자양하는 기능을 하며, 여성의 월경 및生殖機能과도 밀접히 연관된다. 둘째, 肝은 혈액 저장 상태에서 인체 활동에 따라 血을 분배하거나 회수하는 혈량의 조절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肝의 疏泄 작용과 연동된다. 셋째, 肝은 혈류를 통제하여 출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이 과정은 氣血 상호 작용과 肝氣·肝陰·陽의 균형에 의해 매개된다. 넷째, 肝은 魂을 주재하는 장부로, 肝血이 魂의 물질적 기반이 되며, 그 충실도에 따라 정신활동의 안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본다.⁴⁾⁵⁾⁶⁾⁷⁾

『東醫生理學』이 ‘肝藏血’을 비교적 단선적인 기능

중심으로 해석한 반면, 중국의 이론서들은 혈량 조절, 출혈 방지, 정신활동과의 연계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서술하며, 이론적 체계성과 임상 적용 가능성 면에서 보다 정교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 설명 중 ‘혈량 조절’이나 ‘혈액 응고’와 같은 개념은 생의학적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한의학 고유의 사유 체계 내에서 정합적으로 해석되기에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이처럼 기존 이론들은 생의학과 한의학 간의 이론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간극을 보완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2) 국내외 연구

국내에서는 “人臥血歸於肝”만을 단독으로 다룬 연구는 확인되지 않으나, ‘肝藏血’을 중심으로 다른 연구는 일부 확인된다. 안진희 등⁸⁾은 ‘肝藏血’을 단순한 저장 기능으로 한정하지 않고, 將軍과 謀慮의 象을 통해 肝이 혼탁하고 질서가 어지러운 血을 정비하여 생리 활동에 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재해석한다. 이러한 관점은 肝의 升發, 疏泄 기능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바로 정비된 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명 활동에 필요한 陽氣와의 결합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 “人臥血歸於肝”에 대해서는 肝이 血의 귀속처로서 신체 기능의 회복과 준비를 담당하는 장소임을 의미하는 문장으로 해석하였다.

다른 연구⁹⁾에서는 ‘肝藏血’과 “人臥血歸於肝”을 서양의학의 혈액 순환 및 대사 조절 기능과 연결하여 시도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세동맥(arterioles)이 대사율에 따라 혈류를 조절하고 각 조직에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역할은 肝이 血을 분배·회수하는 기능과 유사한 원리라고 풀이하였다. 안진희 등¹⁰⁾은 肝

- 3)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동의생리학. 원주. 의방 출판사. 2024. p.193.
- 4) 张保春 编著. 中医基础理论. 北京. 学苑出版社. 2009. pp.38~39.
- 5) 何晓晖 主编. 中医基础理论(第2版). 北京. 人民卫生出版社. 2010. pp.76~77.
- 6) 高思华, 王键 共主编. 中医基础理论(第2版). 北京. 人民卫生出版社. 2012. pp.77~78.
- 7) 孙广仁, 郑洪新 共主编. 中医基础理论(第3版). 北京. 中国中医药出版社. 2012. pp.114~115.

- 8) 안진희, 신상원, 윤은경. 『素問·靈蘭秘典論』의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에 대한 고찰 - 肝의 기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0. 33(1).
- 9) 유윤조. 대사에 있어서 血의 순환에 대한 통합의학 이론 소고.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24. 38(5). p.170.
- 10) 안진희, 신상원, 윤은경. 『素問·靈蘭秘典論』의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에 대한 고찰 - 肝의 기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0. 33(1). pp.175-

의 영양 물질 대사 기능 역시 血을 통해 전신에 물질을 운반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肝藏血'의 의미와 접점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처럼 국내 연구들은 개념의 기능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데에 있어 진전을 보였으나, 몇 가지 이론적 한계도 여전히 존재한다. 유윤조는 '肝藏血'을 血의 저장 기능으로 보고 이를 세동맥의 기능과 연결지었으나, 이는 '藏'의 의미 맥락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기능적 유사성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한계가 있다. 안진희 등의 해석은 '肝藏血'을 將軍의 전략 수립에 비유하며 의미 확장을 시도한 점에서 유의미 하나, '藏', '歸', '臥' 사이의 연계, 그리고 시간성과 순환 구조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¹¹⁾

한편, 중국에서는 주로 『黃帝內經』 등 문헌의 원문을 바탕으로 하여 “人臥血歸於肝”과 “肝藏血” 개념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보인다. 이론적 해석에서는 ‘肝藏血’을 주로 혈액의 저장 기능으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血庫’, ‘血府’, ‘血室’, ‘血海’ 등 다양한 용어를 통해 그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藏’이 단순한 물리적 저장 기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 활동의 변화에 따라 血을 분배하거나 회수하는 혈량 조절 기능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은 肝氣의 條達 작용과 밀접히 연관되며, 저장 기능은 조절 기능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간주된다. 생의학에서의 肝은 혈액 응고 인자 합성, 모세혈관 투과성 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점에서, 血의 統攝 기능과의 연관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¹²⁾

나아가, 肝이 단순히 혈액을 저장·조절하는 수준을 넘어 혈액 생성에까지 관여한다고 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肝이 영양물질을 분해·합성하여 새로 운 血 성분을 만들어내고, 脾와 腎으로부터 공급받은 精微로운 물질을 肝의 생발 작용을 통해 血로 轉

176.

11) 예컨대 “人臥血歸於肝”에서 血이 肝으로 회귀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이며 회귀하는 공간은 어디인지, 또 회귀가 일어나는 조건을 ‘臥’로 본 이유는 무엇인지, 血이 회귀한 상태에서 수행하는 구체적 기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2) 陳明. “肝藏血”小議. 國醫論壇. 1995.(6). p.44.

化시킨다는 것이다. 또 ‘肝藏血’을 肝이라는 장기가 단독적으로 수행하는 혈류 저장 기능으로만 한정할 경우 이론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점을 의식하여, 생의학의 이론을 더욱 폭넓게 적용하여 정맥계 혈류 시스템, 또는 교감신경-부신수질 축 등 광범위한 혈액 계통의 조절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해석하기도 하였다.¹³⁾¹⁴⁾

이와 같은 이론적 해석을 토대로, ‘肝藏血’ 개념을 임상적으로 적극 적용하려는 연구 흐름도 존재한다. 이들 연구는 ‘肝藏血’ 이론이 혈액 질환, 정신 질환, 부인과 질환, 만성 피로 등 다양한 내과 및 부인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肝血不足으로 인한 ‘不寐’, ‘筋目失養’, ‘月事失調’ 등의 증후에 대해 肝血을 보양하는 치법을 제시하며, 肝의 생리 기능이 혈액의 생성, 운행, 통섭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가운데 특히 여성의 생리 주기와의 밀접한 관련성에 주목하는 시도도 확인된다.¹⁵⁾

“人臥血歸於肝” 구절 역시 직접적으로 임상적 상황에 적용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예를 들어 수면의 질이 간 기능 회복에 영향을 미쳐 만성 간질환, 지방간과도 관련된다는 연구가 있다.¹⁶⁾¹⁷⁾ 또한 불면증 치료에 酸棗仁湯, 半夏秫米湯을 사용한 근거를 “人臥血歸於肝”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으며,¹⁸⁾ 간의 저장 기능 이상으로 인한 철분의 축적 및 이로 인한 골다공증을 “人臥血歸於肝”과 연계하여 설명한 바도 있다.¹⁹⁾

13) 楊芳豔, 陳鋼, 柏琳娜, 張建偉. 《黃帝內經》“肝生血”機制探析. 中華中醫藥雜志. 2017. 32(10). pp.4468-4469.

14) 房克英. “肝藏血主疏泄”的現代文獻研究. 2013. 北京中医药大学 硕士学位论文. p.27.

15) 蕭婧. 宋以前 “肝藏血” 文獻的研究與臨床意義. 2013. 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pp.50-51, 53-56, 58-59.

16) 黃金鳳, 皮立宏. 從“人臥血歸於肝”理論探討睡眠對慢性肝病治療的意義.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2016. 14(2). pp.39-40.

17) 劉可佳, 徐帥, 李娟娟, 劉寶山, 趙靜潔. 基於“人臥血歸於肝”探討睡眠障礙對代謝相關脂肪性肝病的影響. 陝西中醫. 2023. 44(6). p.758.

18) 趙先陽, 方朝暉. 從“人臥血歸於肝”論治不寐臨床經驗. 臨床中醫雜志. 2018. 30(12). pp.2218-2220.

19) 李紅專, 史恒蔚, 張敏, 馬同, 許偉, 李彥強, 張永健. 基於“惡血歸於肝”理論的鐵蓄積與絕經後骨質疏松症的關係探討.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중대한 이론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연구가 ‘肝藏血’과 “人臥血歸於肝”에서 말하는 肝의 기능을 ‘혈액의 물리적 저장’ 또는 ‘혈류 조절’ 기능과 같은 해부학적 기능에만 한정지어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血의 의미를 물질적 수준으로만 한정하는 동시에 肝 또한 물리적인 저장고의 의미로만 한정하게 만든다. ‘臥’의 의미 또한 血과 肝 사이의 의미 맥락을 통해 폭넓게 해석되지 못하고 ‘수면’의 의미로만 좁게 해석되었다. 이처럼 생의학적 생리 기전을 단순 대응시키려는 시도는 본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의학 고유의 다층적 의미연결망을 단절시키고 그 요소들을 생의학의 체계에 종속시킴으로써, 한의학 개념의 존재 의의를 축소시키거나 상실케 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요컨대, 국내외 기존 연구들은 한의학이 당면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肝의 기능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그 임상 적용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왔다는 점에서 그 시도는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론적 설명은 환원적이고 기능적인 해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개념이 관련된 의미관계망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2. 『素問·五臟生成』의 “人臥血歸於肝”

1) “人臥血歸於肝”과 전후의 문맥

五臟의 藏象과 기능을 설명하는 주요한 『황제내경』의 편장 가운데 하나인 『素問·五臟生成』에서는 여러 장부와 기타 몸 구성 요소 간의 긴밀한 구조적 연계를 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가운데 血의 순환과 작용에 대한 서술에서 “人臥血歸於肝” 구절을 통해 血의 회귀 과정에서 肝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제시하였다.

諸脈者皆屬於目, …… 諸血者皆屬於心, …… 故人臥血歸於肝, 肝受血而能視, 足受血而能步, 掌受血而能

握, 指受血而能攝. 臥出而風吹之, 血凝於膚者爲痺, 凝於脈者爲泣, 凝於足者爲厥. 此三者, 血行而不得反其空, 故爲痺厥也. (『素問·五臟生成』)20)

먼저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人臥血歸於肝”에 대해 살펴보면, 血의 회귀를 의미하는 “血歸於肝” 부분과 그 조건을 의미하는 “人臥”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歸’, ‘肝’, ‘臥’의 요소들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세 요소들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문제들을 각각 다루고자 한다. 첫째, ‘肝’은 왜 ‘血의 회귀’ 과정에 관련된다고 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위상을 갖는지, 둘째, ‘歸’가 뜻하는 ‘血의 회귀’란 전체 생명 현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셋째, ‘臥’는 왜 ‘血의 회귀’의 조건이 된다고 보았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각각 검토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위 문장 중 “人臥血歸於肝” 구절 전후의 문맥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문장 간 의미 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血歸於肝”을 중심으로 血에 관련된 내용을 일관되게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黃帝內經』 저자들이 일정한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문장들을 배치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위 문장의 내용은 血의 회귀 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血 순환과 관련된 臟腑로 心과 肝을 제시하는 한편, 血의 회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諸脈者皆屬於目, …… 諸血者皆屬於心, ……”이라고 말한 두 구절은 血이 脈을 통해 몸을 운행하며 작용을 드러내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본래 이 문장은 脈, 髓, 筋, 血, 氣 등의 몸의 구성요소들이 사지 관절[四支八谿]로 출입하여 작용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目, 腦, 節, 心, 肺의 역할을 폭넓게 설명한 것이다.²¹⁾ 그러나 ‘故’라는

20)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9.

21)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5. p.39. “諸脈者皆屬於目, 諸髓者皆屬於腦, 諸筋者皆屬於節, 諸血者皆屬於心, 諸氣者皆屬於肺, 此四支八谿

접속어로 이어진 “人臥血歸於肝” 이하의 문장은 모두 血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여 ‘脈’과 ‘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諸血者皆屬於心” 구절은 血이 전신으로 펼쳐지는 과정을 心이 관장한다는 것으로, 肝이 血의 회귀 과정을 주관한다고 말하는 “人臥血歸於肝” 구절과 대비되면서 상보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諸脈者皆屬於目” 구절은 脈을 순행하는 血이 눈의 시각 기능에도 관여함을 시사하는데, 이어서 나오는 “肝受血而能視” 구절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肝受血而能視, 足受血而能步, 掌受血而能握, 指受血而能攝。” 부분은 ‘肝’, ‘足’, ‘掌’, ‘指’가 血을 공급받음[受血]으로서 ‘視’, ‘步’, ‘握’, ‘攝’ 등의 행위가 잘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앞 구절에서 말한 “血歸於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특히 “肝受血而能視”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걸음을 걷고[步], 움켜쥐고[握], 잡는[攝] 것과 같은 기본적인 운동 기능은 주로 四肢인 ‘足’, ‘掌’, ‘指’와 연관되는 반면 시각[視] 기능은 肝이 血을 받음으로써 실현된다고 말하였는데, 五臟 중 하나인 ‘肝’은四肢 말단인 ‘足’, ‘掌’, ‘肢’와 그 위상이 분명히 구별된다. 즉, 물리적인 시각 정보의 수용은 눈이라는 물리적 기관에서 이루어지지만, 의식이 그것을 인지하는 작용은 분명 精神의 개념이 개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血의 작용이 四肢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신체 운동 층위만이 아니라 각각 정보를 인지하여 의식의 변화를 야기하는 정신 층위까지 폭넓게 수용한다고 보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정신 층위를 포함하는 血의 원활한 작용은 “血歸於肝”的 작용과 일정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

“臥出而風吹之” 이후의 문장은 수면 중[臥出] 風에 침습당하여 ‘痺’, ‘泣’, ‘厥’과 같은 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했는데, “血歸於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상적인 수면이 風의 방해를 받은 것은 본문 앞 구

之朝夕也.”

절에서 말한 “血歸於肝”的 조건인 “人臥”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血歸於肝”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血이 정상적으로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응결[凝]이 일어나게 되며,²²⁾ 이러한 응결이 피부[膚], 경맥[脈], 하지[足]에 일어날 경우, 각각 저림[痺], 血의 운행 장애[泣], 사지의厥冷[厥]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정상적인 “血歸於肝”的 수행 여부에 따라 이러한 血行과 관련된 임상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人臥血歸於肝”에 대한 王冰의 註解

우선 “人臥血歸於肝”에서 사용한 ‘歸’라는 표현의 함의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 ‘歸’는 낮에 밖에 나와 활동하다가 밤이 되면 본래의 자리인 집으로 돌아가듯이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는 글자이다. 따라서 이 글자 자체에 ‘현재 임시로 활동하는 자리’에서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두 공간 사이의 이동’이라는 의미 맥락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血歸於肝”이 의미하는 血의 순환 과정도 또한 ‘임시로 활동하는 자리’와 ‘본래 있어야 할 자리’ 사이에서 주어지는 시간적·공간적 편차로 구별될 수 있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홍미롭게도 이러한 추론은 실제로 “人臥血歸於肝”에 대한 王冰의 주석에서 구체적인 血 순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되었다. 王冰의 주석은 『黃帝內經素問』에 대한 가장 표준적인 주석으로 간주되며, 후대 한의학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해하였다.

故人臥血歸於肝 肝藏血, 心行之, 人動則血運於諸經, 人靜則血歸於肝藏, 何者. 肝主血海故也. 肝受血而能視 言其用也. 目爲肝之官, 故肝受血而能視. 足受血而能步 氣行乃血流, 故足受血而能行步也. …… 指受血而能攝 …… 血氣者, 人之神. ……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²³⁾

22) 이는 보다 후대에 제시되는 瘀血 개념의 초기적인 양태라고 볼 수 있다.

23) 王冰 注.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5. p.60.

王冰은 “人臥血歸於肝”을 풀이할 때 “肝藏血”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는데, 그가 두 명제를 사실상 동일한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肝藏血”에 대한對句로 “心行之”를 언급하여 血의 순환 과정에서의 肝과 心의 작용을 대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몸의 활성 정도(動·靜)에 따른 血의 순환 양상의 차이(歸·運), 그리고 그에 따른 血의 소재(肝藏諸經)를 이러한 肝의 藏血과 心의 行血의 대비 구조를 따라 제시하였다. 즉, 사람의 몸이 활동 상태[動]에 있는 경우에는 血이 주로 온몸의 경맥[諸經]으로 운행[運]하는데 이때에는 心이 그 운행[行]을 주관하며, 몸이 안정 상태[靜]에 있는 경우에는 血이 주로 肝[肝藏]으로 회귀[歸]하는데 이때에는 肝이 그 갈무리[藏]를 주관한다고 보는 것이다.(표1.)

여기에서 『內經』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血海의 개념을 血의 귀결처로 제시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王冰은 血이 肝으로 회귀한다고 말한 까닭에 대해 ‘肝이 血海를 주관하기 때문[肝主血海故也]’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血이 최종적으로 회귀하는 곳은 血海이며 그 과정을 주관하는 것이 肝이라고 본 것이다. 血海는 비유적 개념으로서 그 원개념인 ‘바다[海]’는 여러 강물 줄기가 모이는 공간이므로, 실제로 그 비유 속에는 “血歸於肝”的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王冰은 “人臥血歸於肝”이 몸이 안정 상태[靜]에 있을 때 血 순환 체계에서 일어나는 순환의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한 것이며,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하여 몸의 활동 상태[動]에 血 순환 체계에서 일어나는 순환의 경향성을 대비적으로 함께 제시한 것이다. 곧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몸의 활성도 변화에 따라 血이 주로 순환하는 공간도 달라지며 그 순환의 양상 또한 달라짐을 말하는 것으로, 王冰 당시에 이와 같은 血의 순환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24) 그런데 이와 같은 血 순환 체계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생소한 것인데, 그 까닭은 현대에는 血의 순환 경로에 대한

이러한 血 순환 체계에서 대립적으로 제시된 서로 다른 두 가지 순환 충위는 ‘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의미 맥락을 제공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歸’는 ‘임시로 활동하는 자리’와 ‘본래 있어야 할 자리’ 사이의 이동을 의미하는데, 이를 왕빙이 말한 血 순환 체계에 적용해본다면 ‘歸’는 온몸의 경맥[諸經]에서 肝(血海)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활동 상태에서 心이 운행을 주관하는 온몸의 경맥[諸經]은 血이 ‘임시로 활동하는 자리’에 해당하며, 肝이 갈무리를 주관하는 肝, 또는 肝이 주관하는 血海는 血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두 가지 血 순환 충위는 ‘회귀[歸]’라는 전환 과정을 전후하여 두 곳의 ‘자리’라는 공간적 위상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온몸의 경맥[諸經], 즉 十二經脈은 血이 회귀하기 이전에 활동이 일어나는場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며, 肝 또는 血海는 血이 회귀하는 귀결처이자 근원처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이를 상대적인 内外의 공간 충위로 구분할 경우, 十二經脈은 ‘외적 순환 충위’에 해당하며 肝 또는 血海는 ‘내적 순환 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王冰이 제시한 血 순환 체계의 대비 구조

	내적 순환 충위	외적 순환 충위
주관하는 藏	肝	心
藏의 작용	藏血	行(血)
몸의 활성도	靜	動
血의 순환 양상	歸	運
血의 소재	肝藏(血海)	諸經

3. “人臥血歸於肝”的 ‘肝’, ‘歸’, ‘臥’ 분석

1) 血의 회귀를 주관하는 ‘肝’과 그 회귀처인 血海

(1) 内外로 구분되는 血 순환 체계에 대한 『內

설명이 주로 十二經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肝에 의해 血海로 회귀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肝藏血’이라는 肝의 기능으로만 다루어질 뿐 血 순환의 일부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經』의 인식

王冰은 ‘諸經’과 ‘肝(血海)’을 각각 血 순환 체계에서의 외적 순환 충위와 내적 순환 충위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人臥血歸於肝”은 血이 諸經으로부터 肝(血海)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그런데 血 순환 경로의 범위를 十二經脈으로만 한정하는 현재의 지배적인 통념에 의존할 경우, 内外로 구분되는 血 순환 체계에 대한 설명이나 두 충위 사이에서 일어나는 血의 회귀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생경하게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통념이 형성된 까닭은 아마도 『靈樞經脈』에서 “經脈者，所以能決死生，處百病，調虛實，不可不通。”²⁵⁾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十二經脈이 營氣, 또는 血과 관련된 몸의 생리 및 병리 현상을 외부로 드러내어 진단과 치료를 가능케 하는 가장 명시적인 구조로 기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의 배경이 되는 營氣의 순환 경로에 대한 『內經』의 서술을 상세히 분석해보면, 内外로 구분되는 血 순환 체계에 대한 인식의 단서가 함께 제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내적 순환 충위의 ‘血海’ 개념은 十二經脈로 대표되는 외적 순환 충위에 비해 다소 생소한 느낌을 주지만, 血海의 개념에 관한 『內經』의 서술에는 血 순환 체계 속 血海의 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內經』의 서술을 재검토함으로써 상당히 낯설어 보이는 王冰의 논의가 기준의 지식들과 연계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靈樞·營氣』에 따르면 王冰이 말한 ‘諸經’, 즉 十二經脈의 血은 하나의 흐름을 갖는 營氣의 상태로 “營氣之所行也，逆順之常也。”라는 표현처럼 정해진 경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순환한다고 하였다. 그 순환의 순서는 手太陰을 시작으로 手陽明, 足太陰, 足少陰, 足太陽, 手太陽, 手少陰, 手厥陰, 手少陽, 足少陽, 足厥陰을 순행하는 十二經脈의 일반적 流走 순서를 따라 전신을 순환하게 된다. 그런데 순환을 마친 후에 바로 다시 手太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

25)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79.

니라 督脈을 순행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²⁶⁾ 督脈 이후 나타나는 “絡陰器，上過毛中，入臍中，上循腹裏，入缺盆，下注肺中，復出太陰”이라고 하는 순행 노선에 대해서는 그 經脈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주석에서는 대체로 이 노선이 任脈을 의미한다고 보았다.²⁷⁾ 즉, 『內經』에서 말하는 營氣의 순환 과정은 비단 十二經脈만이 아닌 奇經八脈인 任·督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內經』의 저자들이 애초에 十二經脈과 동등하지 않은 다른 충위의 경로가 血 순환 체계에 포함된다고 보았음을 보여준다. ‘任·督脈’은 王冰이 말한 ‘肝’ 또는 ‘血海’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十二經脈과 구별되는 보다 내적인 순환 충위에 대한 인식이 성립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 十二經脈과 奇經八脈의 특징과 위상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奇經八脈은 十二經脈과 별도의 노선을 갖는 經脈을 말하는데 주로 十二經脈의 血氣를 비축·간직하여 血氣의 흐름을 조절하는 보완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²⁸⁾ 특히 ‘天癸’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언급되어 생식·성장·노화 등 보다 先天에 가까운 근원적인 생명 현상에 연관되는데, 『素問·上古天眞論』의 ‘天癸’에 대해 王冰은 여자의 生殖 기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女子胞와 胎를 주관하는 任脈과, 血海인 衝脈이 胞

26)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13. “氣從太陰出注手陽明，上行注足陽明，……與太陰合，上行抵脾，從脾注心中，循手少陰，……合手太陽，……合足太陽，……注足少陰，上行注腎，從腎注心，……循心注脈，……合手少陽，……從三焦注膽，……注足少陽，……合足厥陰，上行至肝，從肝上注肺，……其支別者，……是督脈也，……絡陰器，上過毛中，入臍中，上循腹裏，入缺盆，下注肺中，復出太陰，此營氣之所行也，逆順之常也。(『靈樞·營氣』)”

27)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범인문화사. 2006. “督脈自尾骶前絡陰器，即名任脈，上過陰毛中，入臍上腹，入缺盆，下肺中，復出於手太陰經。前經脈篇未及任督，而此始全備，是十四經營氣之序。”

28) 전국한의과대학침구경혈학교실 편저. 침구학(상). 서울. 집풍당. 2007. p.112. “奇經八脈은 正經의 不足을 補充할 수 있는 例로 十二經의 生育方面 역할에 대한 說明이 不充分한데 반하여 奇經八脈의 …… 이런 方面에 對하여 充分한 記述를 갖고 있다. …… 奇經八脈은 또 十二經의 血氣盈虛作用을 調節함이 있다. …… 十二經의 氣血이 滿溢하면 즉시 奇經에 蕴藏하게 된다.”

宮에 작용해야 한다고 하여, 任脈, 衝脈이 새로운 생명의 창조에 관련됨을 설명했다.²⁹⁾ 奇經八脈 중 任脈, 衝脈, 督脈의 起始가 모두 자궁 또는 생식기로 설정된 것 또한 여성의 月事와 임신, 출산, 산후 및 남성의 수염 발생 등과의 기능적 연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³⁰⁾

이로 볼 때, ‘十二經脈’이 외부 세계의 변화에 대한 몸의 대응을 담당하는 역할로 규정된다면, ‘奇經八脈’은 몸의 생성과 생명의 재창조를 통한 생명의 존속에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내밀한 구조라 할 수 있다.³¹⁾ 따라서 王冰이 제시한 血 순환 체계에 대응시켜 본다면, 외부 세계와의 관련성이 깊은 十二經脈은 血의 외부 순환 층위에, 생명의 존속을 위한 내적 기능을 담당하는 奇經八脈은 血의 내부 순환 층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王冰이 제시한 內外 순환 층위는 단지 공간적 구분만이 아니라 기능적 분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靈樞·營氣』의 營氣 순환을 다시 검토해보면, 『內經』 저자들이 營氣의 순환 경로에 十二經脈만이 아니라 任·督脈까지 포함시킨 것은 血의 외적 기능만이 아니라 내적 기능까지 복합적·입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奇經八脈 중 衝脈은 『靈樞·營氣』에서 기술한 營氣 순환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衝脈도 任·督脈과 매우 긴밀한 기능적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역시 血의 내적 순환 층위에 포함되리라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衝脈은 여러 문헌에서 王冰이 내적 순환 층위로 명시한 ‘血海’의 실질로 인식되어 왔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유효한 의미를 가진 추론으로 보인다.

29) 王冰 注.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5. p.4. “癸謂壬癸, 北方水干名也. 任脈衝脈, 皆奇經脈也. 腎氣全盛, 衝任流通, 經血漸盈, 應時以下, 天眞之氣降, 與之從事, 故云天癸也. 然衝爲血海, 任主胞胎, 二者相資, 故能有子, 所以謂之月事者, 平和之氣, 常以三旬而一見也. 故愆期者, 謂之有疾.”

30) 류정아, 정창현. 奇恒之腑와 奇經八脈의 관련성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4. 27(2). p.62.

31) 류정아, 정창현. 奇恒之腑와 奇經八脈의 관련성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4. 27(2). pp.65-66.

血海에 관한 상세한 언급은 『靈樞·海論』에 등장한다. 『靈樞·海論』에서는 몸에 髓海, 血海, 氣海, 水穀之海라는 네 가지의 海 개념을 설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血海에 대해 “衝脈者, 爲十二經之海”라는 명확한 기술을 통해 衝脈이 그 실질임을 언급하는 동시에 十二經脈과의 관계까지 제시하였다.³²⁾ 마치 강물이 흘러 바다[海]에 모이듯이 十二經脈의 血이 흘러 회귀하는 자리가 血海, 곧 衝脈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후대의 문헌에서도 이러한 衝脈의 위상을 부연 설명하였는데, 『東醫寶鑑』「鍼灸」<奇經八脈>에서는 ‘血이 十二經脈에 충만하게 되면 奇經으로 흘러간다’고 설명하였다.³³⁾ 奇經 중에서도 특히 衝脈(血海)이 이러한 역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衝脈은 나머지 모든 經脈의 氣血 흐름을 통괄하는 역할로 설명되기도 하였다.³⁴⁾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內經』의 저자들은 内외로 구분되는 血 순환 층위에 대한 일관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奇經八脈 중 任·督脈 및 衝脈에 대해서는 血 순환의 측면에서 十二經脈과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内外의 구분에 대한 인식은 공간적 측면만이 아니라 기능적 측면까지 포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衝脈과 동일한 실질을 지칭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血海의 기본적인 개념 역시 血 순환의 측면에서 十二經脈으로부터 血이 회귀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로 볼 때 任·督脈, 衝脈 또는 血海와 같은 개념들은 각각 다소간의 의미 차이를 갖고 있으나 공간적, 기능적으로 일정한 유사성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血 순환

32)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74. “人有髓海, 有血海, 有氣海, 有水穀之海, 凡此四者, 以應四海也. …… 衝脈者, 爲十二經之海.(『靈樞·海論』)”

33) 許浚 著. 한국한의학연구원 刊. 내순안에 동의보감 원문 강독편. 경기: 수퍼노바. 2017. p.790. “聖人圖設溝渠, 以備水潦之溢, 溝渠滿溢則流於深湖, 人脈隆盛, 入於八脈而不環周.”

34) 許浚 著. 한국한의학연구원 刊. 내순안에 동의보감 원문 강독편. 경기: 수퍼노바. 2017. p.790. “衝衝而直行於上, 爲十二經脈之海, 總領諸經氣血.”

의 측면에서 단지 經脈에 부속된 분지가 아니라 十二經脈에 대립되는 독자적 순환 층위로서의 위상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王冰은 이러한 인식을 內外의 血 순환 체계로 체계화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2) 내외 순환 층위의 특성과 역할

血의 회귀[歸]를 통해 전환되는 두 층위의 특성에 대한 설명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血歸於肝”에서 肝이 주관하는 血의 회귀 과정, 그리고 血의 회귀처로서의 血海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므로 內外 순환 층위 각각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血의 內外 순환 층위의 구분은 內外라는 공간적 차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공간적 차이는 결국 기능적 차이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외적 순환 층위와 내적 순환 층위가 각각 몸 전체의 血 순환에서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① 외적 순환 층위

血의 외적 순환 층위는 곧 ‘十二經脈’을 말하는 데, 十二經脈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血 순환 경로에 관한 지배적인 통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 특성과 역할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經脈의 기능에 대한 가장 분명한 언급이 나타나는 『靈樞·本藏』에서는 “經脈者，所以行血氣而營陰陽，濡筋骨，利關節者也。……是故血和則經脈流行，營覆陰陽，筋骨勁強，關節清利矣。”라고 설명하였다.³⁵⁾ 이에 따르면 經脈의 기능은 곧 經脈을 통해 운행하는 血의 작용을 의미하는데, 筋骨을滋養하여 견고하게 만들고 關節의 운동을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하여 몸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靈樞·邪客』에서 營氣가 “以榮四末”한다고 한 것³⁶⁾이나 『靈樞·海論』에서 十二經脈에 대해 “外絡於肢節”³⁷⁾이라고 말한 것

35)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13.

36)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98. “營氣者，泌其津液，注之於脈，化以為血，以榮四末，內注五藏六府，以應刻數焉。”(『靈樞·邪客』)

37)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74. “夫十二經脈者，內屬於府藏，外絡於肢節。(『靈樞·海論』)”

도 이러한 외적 순환 층위의 기능을 말한 것이며, 앞서 살펴 본 『素問五藏生成』의 ‘足’, ‘掌’, ‘指’의 운동 기능이 바로 이렇게 몸의 운영과 유지를 주관하는 經脈의 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⁸⁾

王冰은 血의 외적 순환 층위를 心이 주관하여 血을 운행시킨다고 하였는데, 이는 같은 篇에서 말한 “諸血者皆屬於心”이나 『素問瘡論』에서 말한 “心主身之血脉”³⁹⁾과 같은 설명으로 볼 수 있다. 經脈을 통한 온몸으로의 血의 운행을 心이 주관한다는 것인데, 이는 心이 외부 세계의 변화를 밝게 살펴 자신의 몸을 움직여 대응하는 ‘君主之官’⁴⁰⁾의 藏象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이러한 血의 외부 순환 층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몸을 적절히 유지하거나 운영하여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血의 순환이 원활할 경우 ‘孫脈, 絡脈, 經脈의 순서로 가장 외부에서부터 채워진다’고 보는 것⁴¹⁾도 외적 순환 층위의 血 순환의 존재 목적에 관련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내적 순환 층위

이처럼 血의 외적 순환 층위로서의 十二經脈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명확한 것에 비해, 血의 내적 순환 층위에 해당하는 血海, 또는 衝脈의 경우 血의 순환이라는 측면에서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각 층위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血歸於肝”, 즉 ‘회귀[歸]’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내적 순환 층위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內經』에서 血海 또는 衝脈은 성장·노화와 같은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몸의 변화, 그리고 새로

38)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9. “足受血而能步，掌受血而能握，指受血而能攝。”

39)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66.

40)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4. “心者，君主之官也，神明出焉。”(『素問靈蘭秘典論』)

41)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45. “血和則孫脈先滿溢，乃注於絡脈，皆盈，乃注於經脈。”(『靈樞·癰疽』)

운 생명의 창조와 관련된 생식의 기능에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素問·上古天眞論』에서는 남녀의 성장과 성숙, 생식과 노화에 이르기까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天癸와 任脈, 衝脈의 변화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天癸의 발현과 衝脈(太衝脈)의 충실 여부가 월경 주기의 개시와 가임 능력 확득의 핵심 요인으로 제시되며, 반대로 衝脈이 쇠퇴하면 곧 생식 능력이 소멸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⁴²⁾ 여성의 월경과 가임 능력은 모두 임신과 태아의 발달에 기여하는 子宮의 血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명 현상인데,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혈의 작용은 특히 衝脈을 순환하는 혈과 관련됨을 밝히고 있다. 이는 衝脈이 血의 외적 순환 충위와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하며, 단순한 혈의 순환 통로라는 물리적 기능에 한정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靈樞·五音五味』에서는 주로 남성의 2차 성장과 관련된 衝脈과 任脈의 기능이 설명된다. 이 篇에서도 먼저 衝脈이 자궁[胞中]에서 起始하여 몸의 내부 공간[腹裏]을 순환하며 외부 순환 충위인 經絡의 血이 회귀하는 저수지[海]가 된다는 내적 순환 충위로서의 위상을 설명한다.⁴³⁾ 그리고 衝·任脈의 血이 충실하면 남성의 경우에는 입 주변으로 血이 流走하여 2차 성장의 대표적인 징후인 수염의 생장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으로 인한 血의 반복적인 소모로 인해 수염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⁴⁴⁾ 또한 남성 중에서도 생식 능력이 결핍된 남성들, 즉 성기[宗筋]를 거세한 환관[宦者]의

사례와 선천적 성발달 이상(Disorders of Sexual Development, DSD)[天宦]의 경우를 비교하며 衝·任脈이 남성의 2차 성장과 생식 능력의 획득에 관련됨을 설명하였다. 환관은 성기를 제거함으로써 衝脈이 손상되어 血이 소모된 채 회복되지 못하며,⁴⁵⁾ 선천적 성발달 이상(DSD)의 경우는 처음부터 衝脈이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衝脈의 血이 입 주변을 영양하지 못하여 수염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였다.⁴⁶⁾

이러한 衝脈의 血에 대한 『內經』의 논의는 후대 의가들에 의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진다. 예컨대 朱丹溪의 『格致餘論』에서는 월경이 종료되면 血海가 정화되며, 이 때 精과 血의 영향에 따라 태아의 성별이 결정된다는 가설을 언급한다.⁴⁷⁾ 또한 張介賓은 子宮이 남성의 精, 여성의 血이 모두 간직되는 곳으로서 생명의 창조와 태아의 임태가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존재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보았다.⁴⁸⁾ 또 남성에게는 精室, 여성에게는 血室이 된다고 하여 특히 여성의 子宮이 血과 긴밀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다.⁴⁹⁾

한편, 『靈樞·海論』에서는 血海의 虛實에 따른 병증을 ‘자기 몸에 대한 인지의 문제’로 설명하였다.

45)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1. “女子七歲，腎氣盛，齒更髮長，二七而天癸至，任脈通，太衝脈盛，月事以時下，故有子，……七七，任脈虛，太衝脈衰少，天癸竭，地道不通，故形壞而無子也。……腎者主水，受五藏六府之精而藏之，故五藏盛，乃能寫。(『素問·上古天眞論』)”

46)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82. “黃帝曰，其有天宦者，未嘗被傷，不脫於血，然其鬚不生，其故何也。岐伯曰，此天地所不足也，其任衝不盛，宗筋不成，有氣無血，脣口不榮，故鬚不生。(『靈樞·五音五味』)”

47) 朱震亨 撰. 丹溪醫集(第2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p.20. “成胎以精血之後，先分男女者，褚澄之論，愚切惑焉。後閻李東垣之方，有曰經水斷後一二日，血海始淨，精勝其血，感者成男。四五日後血脈已旺，精不勝血，感者成女。……陰陽交構，胎孕乃凝，所藏之處，名曰子宮。一系在下，上有兩岐，一達於左，一達於右。(『受胎論』)”

48) 張介賓. 類經圖翼(附類經附翼). 서울. 成輔社. 1982. p.437. “居直腸之前，膀胱之後，當關元氣海之間，男精女血，皆存乎此，而子由是生，故子宮者，實又男女之通稱也。”

49)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범인문화사. 2006. p.615. “胞，子宮也。在男則為精室，在女則為血室。”

血海가 충실하면 자신의 몸이 크다고 느끼고, 血海가 부족하면 몸이 작다고 느낀다고 하였다.⁵⁰⁾ 이는 血海의 기능이 신체를 바라보는 메타적 인지 (metacognition)와 관련됨을 시사하며, 다양한 체성 감각(somatic sensation)을 구성하는 신경정신학적 기전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지과학에서 논의되는 '신체도식(body schema)'⁵¹⁾ 개념과도 밀접한 유사성을 보인다. 『素問·八正神明論』의 "血氣者, 人之神."이나 『靈樞·營衛生會』의 "血者, 神氣也."⁵²⁾ 등 血이 神 작용의 토대가 됨을 언급한 부분들을 통해 『內經』 저자들이 의식과 관련된 血의 기능에 대해 일관되게 인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衝任脈, 또는 血海와 같은 내적 순환 층위의 血의 작용은 주로 몸의 운영과 유지에 관련된 외적 순환 층위와 달리, 성장과 노화, 2차 성징, 생식 능력의 획득뿐 아니라 몸에 대한 메타적 인지 기능과도 관련된다. 성장과 노화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생명력이 발현되고 소모되는 과정이며, 성징과 생식 능력은 새로운 생명의 창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몸에 대한 메타적 인지 기능은 의식 또는 精神의 작용과 긴밀히 이어져 있다. 이러한 생명 현상은 대체로 외적 순환 층위에서의 血의 작용에 치중된 통념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들이다. 따라서 『內經』 저자들이 설정한 血 개념 범주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저자들이 後天之氣의 차원에 한정된 血 순환만이 아니라, 先天의 생명력과 긴밀히 연동되는 또 다른 순환 층위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된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先天之氣와 긴밀하게 관련되는 血 순환 층위에 대한 저자들의 인식은 衝脈의 流走 노선을 足少陰腎

經과 긴밀하게 관련지은 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靈樞·逆順肥瘦』에서는 衝脈이 五藏六府의 바다[五藏六府之海]가 된다고 하였는데, 그 流走 노선은 위로는 비인두[顚頸]에 이르고 精氣를 대어주며 [灌注], 아래로는 氣街에서 나와 下肢의 足少陰脈 노선과 나란히 흐른다고 하였다.⁵³⁾ 『靈樞·動脈』에서도 衝脈을 十二經脈의 바다[十二經之海]로서 그 기원이 腎에 있음을 명시하였다.⁵⁴⁾ 足少陰腎經과 병행하며 발과 다리까지 깊숙이 스며드는 흐름을 형성하는 등 先天之本으로서 藏精을 주관하는 腎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표명한 것⁵⁵⁾은 衝脈이 단순히 後天에서 유래한 血의 물리적 저장 공간이나 순환 통로로서만이 아니라, 先天之氣와 관련된 생명 현상의 발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衝脈·血海의 내적 순환 층위의 기능은 순수한 先天의 차원으로만 한정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血의 생성은 中焦, 특히 胃가 받아들인 水穀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⁵⁶⁾ 이는 곧 血이 몸 밖에서 유래한 水穀에 뿌리를 두고 있어 생명의 근원인 先天之氣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적 순환 층위의 血은 後天의 水穀으로부터 유래하였으면서도 先天之氣의 작용이 결합하여 복합적인 성질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외적 순환 층위의 특성과 확인히 구별되는 점이다.

53)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88. “少陰之脈獨下行, 何也. 岐伯曰, 不然, 夫衝脈者, 五藏六府之海也, 五藏六府皆稟焉. 其上者, 出于顚頸滲諸陽, 灌諸精. 其下者, 注少陰之大絡, 出於氣街, 循陰股內廉, 入臍中, 伏行於骨內, 下至內踝之後屬而別. 其下者, 並於少陰之經, 滲三陰, 其前者, 伏行於跗屬, 下循跗, 入大指間, 滲諸絡而溫肌肉. 故別絡則跗上不動, 不動則厥, 厥則寒矣. (『靈樞逆順肥瘦』)”

54)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67. “衝脈者, 十二經之海也, 與少陰之大絡, 起於腎下. (『靈樞動脈』)”

55) 정창현 『素問·骨空論』의 "並少陰之經"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1). p.230. “衝脈은 足少陰經과 그 근원이 같으며, 그 流注 노선 역시 足少陰經과 일치한다.”

56)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19. “中焦亦並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於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於此, 故獨得行於經隧, 命曰營氣. (『靈樞營衛生會』)”

50)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74. “血海有餘, 則常想其身大, 憨然不知其所病. 血海不足, 亦常想其身小, 狹然不知其所病. (『靈樞神氣論』)”

51) 신체도식(body schema)은 감각 및 운동 정보를 통합하여 신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무의식적으로 파악하고 조절하는 신경학적 체계로, 신경과학, 재활의학, 심리학, 인지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세와 동작의 자동적 수행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활용된다.

52)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19. “血者, 神氣也. (『靈樞營衛生會』)”

『內經』 전반에서 先後天이 중첩된 衝脈의 특수한 위상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그러한 인식은 ‘衝脈’의 流走 노선이 先後天 기능을 각각 대표하는 ‘足少陰’·‘足陽明’ 양쪽 모두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素問·痿論』에서는 後天의 근본인 ‘足陽明脈’이 ‘衝脈’과 함께 생식 기능을 주관하는 宗筋과 만나 陽明의 氣街에 모인다고 설명하였으며,⁵⁷⁾ 『素問·骨空論』에서도 ‘衝脈’은 ‘足陽明’의 氣街에서 출발하여 ‘足少陰腎經’과 나란히 순행한다고 말하였다.⁵⁸⁾ 후대 의가들의 문헌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유지되는데 『醫學綱目』에서는 『內經』과 『難經』에서 말한 衝脈 노선의 논점을 종합하여 衝脈이 陽明·少陰과의 관련성을 모두 갖고 있음을 표현하였다.⁵⁹⁾

이렇게 볼 때, 외적 순환 층위와 내적 순환 층위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대칭적인 위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내적 순환 층위는 외적 순환 층위에 비해 보다 근원적인 자리에 놓여 있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외적 순환 층위가 주로 後天 생명 현상에 관여하는 반면, 내적 순환 층위는 後天에서 유래한 血의 속성을 떠면서도, 동시에 先天 精氣와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창조에 관여하는 보다 근원적인 생명 현상과 관련된다. 따라서 내적 순환 층위는 선·후천의 생명력이 중첩되는 근원적·복합적 위상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말 그대로 외적 순환 층위에서의 생명 현상이 발현되기 위한 바탕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内外 순환 층위의 전환을 주관하는 肝의 특성
이처럼 외적 순환 층위와 내적 순환 층위는 상이한 역할과 위상을 갖지만, 결국 하나의 통합된 血 순환 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양자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内外 순환 층위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환 과정이 핵심인데, “血歸於肝”이라는 명제는 바로 그 전환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존재를 간으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왜 肝이 이러한 순환 층위 간의 전환을 주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肝이 지니는 藏象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肝이 지니는 藏象을 계절의 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素問·四氣調神大論』을 살펴보면, 봄은 속에 간직된 생명력을 밖으로 펼쳐 놓는 ‘發陳’의 象으로 풀이되며 구체적인 養生法에서도 이러한 象을 확인할 수 있다.⁶⁰⁾ 이러한 봄의 흐름은 겨울의 오랜 응축과 간직의 시간을 견딘 이후에 비로소 발현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봄의 象을 藏象으로 갖는 肝은 생명의 시작을 주관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며, 이 때 ‘시작’이란 잠재된 내적 생명력의 외적 발현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肝者，罈極之本，魂之居也，其華在爪，其充在筋，以生血氣。”라고 하여 ‘罈極之本’이라는 藏象을 제시하였다.⁶¹⁾ 이 표현에서 ‘罈極’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해석은 罈를 ‘파’로 읽어 ‘極에 달한 것을 깨뜨린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해석은 肝이 겨울에 封藏되었던 상태를 해제하고, 이를 陽極으로 전환시키는 매개자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박찬국⁶²⁾은 肝이 陰極에서 陽生으로의 전환점이 된다고 보았고, 章

57)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衝脈者，經脈之海也。主滲灌谿谷，與陽明合於宗筋。陰陽滲宗筋之會，會於氣街，而陽明爲之長。”(『素問·痿論』)

58)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衝脈者，起於氣街，並少陰之經，俠齊上行，至胸中而散。”(『素問·骨空論』)

59) 樓英 編撰. 陳柱杓 註釋. 醫學綱目. 서울. 法仁文化社. 2010. p.33. “素問曰衝脈並足少陰之經，難經却言並足陽明之經，況少陰之經挾臍各五分，陽明之經挾臍左右各二寸，氣衝又是陽明脈氣所發，如此推之，則衝脈自氣街起，在陽明少陰二經之內，挾臍上行，其理明矣。”

60)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4. “春三月，此謂發陳，天地俱生，萬物以榮，夜臥早起，廣步於庭，被髮綏形，以使志生，生而勿殺，予而勿奪，賞而勿罰，此春氣之應養生之道也。逆之則傷肝，夏爲寒變，奉長者少。”(『素問·四氣調神大論』)

61)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6. “肝者，罈極之本，魂之居也。其華在爪，其充在筋，以生血氣。其味酸，其色蒼，此爲陽中之少陽，通於春氣。”(『素問·六節藏象論』)

62) 박찬국.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집문당. 2005. p.208.

楠⁶³⁾도 陰極으로부터 陽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腎에서 陽이 발생하여 肝膽을 통해 상승하게 되는 작용으로 해석하였는데, 陰에서 陽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해석은 罷를 '匪'로 읽어 罷極之本을 '匪로의 근본, 또는 피로를 이겨내는 근본'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張志聰⁶⁴⁾은 肝이 신체 운동의 바탕인 筋을 주관하므로 肝이 극도의 신체 운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피로를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김인락⁶⁵⁾은 '罷極은 봄의 생동감과 운동성을 상징하는 것'이라 해석함으로써, '陰에서 陽으로의 전환', 그리고 '피로의 회복'이라는 두 가지 해석이 실은 동일한 본질의 서로 다른 측면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陰이 極에 달해 이를 버티는 과정이 있어야만 이를 발판 삼아 陽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버티는 과정에서의 피로를 감당하며 회복해내는 것은 하나의 과정에 대해 서로 다른 측면에서 관찰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罷極之本'이라는 藏象을 문장 말미의 "生血氣"라는 표현과 연계하여 보면, 이는 곧 內外 순환의 전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 "生血氣"란 血의 역동적 활동 상태, 곧 외적 순환 층위로의 운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앞서 해석한 '罷極'으로 상징되는 陰에서 陽으로의 전환 과정을 통해 내적 순환 층위에서 외적 순환 층위로 血 순환이 전환됨을 나타낸다. 동시에 그 과정은 '피로의 회복'을 통해 전환을 준비하는 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血歸於肝"과 반대로 內에서 外로 향하는 방향성을 의미하지만, 전체적으로는 內外의 전환이라는 유사한 의미 맥락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素問·靈蘭秘典論』에서는 "肝者, 將軍之官, 謂慮出焉."이라 하여 肝을 '將軍'과 '謀慮'라는 직위와 역

63) 章楠 編注. 方春阳, 孙芝斋 點校. 醫門棒喝三集(靈素節注類編).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43. "罷極者, 陰極也, 陰極則陽生, 陽出于腎, 由肝膽而升也."

64) 張志聰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14. p.99. "動作勞甚謂之罷. 肝主筋. 人之運動皆由乎筋力. 故爲罷極之本."

65) 김인락. 肝者 罷極之本에 對한 五行論의 解釋.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9. 8. p.21.

할로 규정하고 있다.⁶⁶⁾ 이 때 '謀慮'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將軍'은 야전 지휘관이 아니라 군사 조직을 질서 정연하게 통솔하기 위한 작전을 수립하는 참모 본부의 역할로 이해된다. 따라서 '將軍'은 병력의 정비와 전략 및 계획의 수립이라는 內的, 靜的 단계를 통해 군사 작전의 개시라는 外的, 動的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주체로 상징되며, '謀慮'는 역동적인 군사 작전의 실행에 앞선 치밀한 전략 및 계획 수립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다.⁶⁷⁾

이처럼 『內經』에 제시된 겨울의 '陰極'에서 陽으로의 전환을 수행한다고 보는 '罷極之本'의 象, '謀慮'를 통해 군사 작전을 전개하는 '將軍'의 象은 공통적으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치밀한 준비 단계를 통해 외부의 역동적인 상황으로 나아가는 패턴을 의미한다. 『內經』 저자들이 제시한 이러한 패턴을 몸의 생명 현상 발현 과정에 적용하여 肝의 藏象을 추론해본다면,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정비함으로서 비로소 역동적인 생명 현상을 개시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肝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肝의 역할은 외부세계와의 접촉면에서 일어나는 血의 역동적인 작용을 준비하기 위하여 血을 내적 순환 층위로 회귀시키고, 다시 내적 순환 층위의 血을 외적 순환 층위로 전개하는 內·外 血 순환 층위 간 전환의 과정에 가장 잘 부합하므로 그 전환을 주관하는 주체로 설정된 것이다.

2) 내적 순환 층위로의 전환, '歸'

앞서 분석한 血의 내외 순환 층위의 구분과 肝의 역할을 바탕으로 볼 때, "血歸於肝"의 '歸'의 의미는 내외 순환 층위 사이의 전환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血의 회귀' 또는 '층위 간 전환'의 의미를 전체 의미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歸'라는 글자는 자체적으

66)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4. "肝者, 將軍之官, 謂慮出焉. 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素問·靈蘭秘典論』)"

67) 안진희, 신상원, 윤은경. 『素問·靈蘭秘典論』의 "肝者, 將軍之官, 謂慮出焉."에 대한 고찰 - 肝의 기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0. 33(1). p.171.

로 ‘활동처’와 ‘근원처’의 차이를 내포하는데, 자연히 ‘돌아온다[歸]’는 행위에는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안정적인 자리를 지향하는 목적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적 순환 충위로부터 내적 순환 충위로의 血의 회귀는 단순히 물질성을 중심으로 규정되는 혈액의 물리적 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血이 보다 근원적인 생명력과의 연계를 회복하여 先天 수준의 생명 현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련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內外 순환 충위의 각각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앞의 논의를 토대로 보면, 血의 회귀는 실제로 그러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內經』 여러 篇의 서술에 근거할 때, 十二經脈으로 대표되는 외적 순환 충위는 後天 생명 현상을 중심으로 설명되는 반면, 血海衝脈 등으로 대표되는 내적 순환 충위는 주로 성장·노화·성장·생식 등 先天의 생명력과 관련된 현상들과 관련되므로 보다 근원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內經』 저자들은 血이라는 하나의 개념 안에 크게 두 갈래의 존재 양상이 있음을 현상적 수준에서도 구분하여 인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肝의 藏象을 통해 ‘歸’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肝의 藏象을 표현한 ‘罷極之本’, 그리고 ‘謀慮’와 ‘將軍’의 象은 공통적으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치밀한 준비 단계를 통해 외부의 역동적인 생명 활동을 개시하는 폐단을 의미한다. 내외를 연결하는 肝의 藏象을 바탕에 두고 미루어 볼 때, “血歸於肝”이 가리키는 ‘내적 순환 충위로의 血의 회귀’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치밀한 준비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적 순환 충위의 ‘준비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외부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몸을滋養하고 운동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血의 소모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血의 소모는 외적 충위에서의 정상적인 몸의 운동 및 유지 기능을 저해하여 결국 몸의 ‘피로’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서 ‘소모’의 의미는 물질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유형적인 소모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기능적 수준에서는 先天之氣에 의

해 부여된 본래적 질서의 상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後天 水穀의 수납을 통한 보충뿐만 아니라, 血에 내재된 본래의 기능적 질서를 회복하는 ‘재정비’의 과정 역시 필요하다.

血의 질서 회복은 고유한 기능적 질서를 담지하는 先天의 생명 요소⁶⁸⁾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곧 血이 先天之氣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내적 순환 충위에서 일어나는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血歸於肝”, 즉 肝이 내적 순환 충위로의 血의 회귀를 주관하는 목적은 내부에 간직된 先天의 생명력을 바탕으로 血의 본래적 질서를 복원해내어 다시 새로운 외적 순환을 원활히 개시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血 회귀의 조건, ‘臥’

“人臥血歸於肝”이라는 명제에서 ‘臥’는 “血歸於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에 해당한다. ‘臥’는 ‘수면’을 의미하므로, 일차적으로는 수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내부 순환 충위로의 血의 회귀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內經』에서는 수면을 주로 시간의 변화에 순응하는 衛氣의 운행과 관련해 설명했다. 예컨대 『靈樞·衛氣行』에서는 衛氣가 밤과 낮의 변화에 따라 陰分과 陽分 사이를 규칙적으로 순환하며, 아침에 陽氣가 나올 때에는 눈[目]으로 나오고 밤에 陰分으로 들어갈 때에도 눈을 감는다고 하였다.⁶⁹⁾ 또한 『靈樞·大惑論』에서는 氣가 몸의 외부[陽]와 내부[陰]에 머무름에 따라 각성과 수면 상태가 달라진다고 설명한다.⁷⁰⁾ 『東醫寶鑑』에서는 이러한 『內經』의 인식을

68) 『素問金匱真言論』에서 “夫精者, 身之本也.”라고 한 것에 근거하면 精이 여기에 해당한다.

69)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24. “衛氣之行, 一日一夜五十周於身, 曆日行於陽二十五周, 夜行於陰二十五周, 周於五藏, 是故平旦陰盡, 陽氣出於目 …… 下行陰分, 復合於目, 故爲一周. …… 其始入於陰, 常從足少陰注於腎, 腎注於心, 心注於肺, 肺注於肝, 肝注於脾, 脾復注於腎爲周. (『靈樞·衛氣行』)”

70)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42. “陽氣滿則陽蹻盛, 不得入於陰則陰氣虛, 故目不瞑矣. …… 陰氣盛則陰蹻滿, 不得入於陽則陽氣虛, 故目閉也. (『靈樞·大惑論』)”

“衛氣의 운행은 낮에는 陽分을 운행하니 눈이 뜨여 쳐 각성하고, 밤에는 陰分을 운행하니 눈이 감기며 잠든다.”고 요약하였고, 추가적으로 ‘사람의 감각 기관을 통한 의식 활동의 주체가 陽氣이므로 陽氣가 陽分으로 나오면 지각이 작동하고 陽氣가 陰分으로 들어가면 지각이 멈춘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를 “양 기의 출입이 각성과 수면이 됨[陽氣之出入爲寤寐]”이라고 종합하였다.⁷¹⁾ 즉, 수면과 각성을 결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陽氣, 구체적으로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衛氣의 출입이며, 특히 각성된 의식은 감각 기관의 지각 작용, 특히 눈의 시각 작용의 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다. 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가역적·반복적·정상적으로 정지된,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보는 ‘수면’의 현대적 정의와도 상통한다.⁷²⁾

따라서 ‘臥’는 주로 陽氣의 운행 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人臥血歸於肝”은 내적 순환 충위로의 血의 회귀가 이러한 陽氣 혹은 衛氣의 운행에 상당 부분 종속됨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陽氣가 주관하는 의식의 지각 작용이 멈춘 상태이어야 비로소 血의 회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血 회귀의 조건은 氣와 血의 음양론적 관계성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氣와 血의 관계는 氣가 선행하여 血을 추동하고 이에 따라 血이 운행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衛氣가 낮에 陽分으로 나오면 血도 외적 순환 충위로 나와 선행하다가, 衛氣가 밤에 陰分으로 들어가야 血도 내적 순환 충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⁷³⁾

71) 許浚 著, 한국한의학연구원 刊. 내손안에 동의보감 원문 강독편. 경기. 수퍼노바. 2017. p.116. “<陽氣之出入爲寤寐> ○靈樞曰, 衛氣之行, 畫行於陽, 則目張而寤, 夜行於陰, 則目瞑而寐。 ○…… 陽氣行陰分二十五度於藏府之內, 則耳目口鼻無陽氣運動, 所以不能知覺而寐矣。聰明者, 豈非陽氣爲之乎。《入門》”

72)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 네이버 주식회사. 1999. [cited on July 06, 2025] ; Available from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7316&cid=51007&categoryId=51007>

73) 이러한 관계성에 대해 『동의보감』에서는 “夫血譬則水也。氣譬則風也。風行水上，有血氣之象焉。蓋氣者，血之帥也。”라고 명묘하게 설명한 바 있다.(許浚 著, 한국한의학연구원 刊. 내손안에 동의보감 원문강독편. 경기. 수퍼노바. 2017. p.107.)

이 문제는 한의학의 대전제인 天人相應, 그리고 전체적인 몸의 활성 경향성의 측면에서 보다 폭넓게 이해해 볼 수도 있다. 주지하듯이 天人相應이라는 전제에 따라 사람의 몸의 활성도는 기본적으로 畫夜, 즉 외부 세계의 시간에 순응할 때 정상적인 생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⁷⁴⁾ 앞서 살펴본 王冰의 訳解에서는 직접적으로 수면을 언급하지 않고 ‘動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시간에 따른 몸의 활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陽氣가 밤에 陰分으로 들어가 수면 상태[臥]로 이행하게 되면, 외부와의 역동적인 교류가 제한되므로 정적인 몸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血歸於肝”은 先天之氣와의 긴밀한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先天之氣는 지극한 정미로움과 순수함을 그 성질로 가지므로 이러한 정적인 몸 환경은 내적 순환 충위에서의 血의 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적합한 조건에 부합할 것이다.

이때 『素問五臟生成』에서 시각 작용과 肝血의 관련성을 언급한 “肝受血而能視”는 血이 각성 중 陽氣가 수행하는 감각 기관의 지각 작용을 돋는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肝受血’은 문맥을 고려할 때 “人臥血歸於肝”的 작용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지각 작용이 정지되는 수면[臥]의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血歸於肝”을 통해 血이 先天之氣인 精神과의 연계 작용을 거쳐 재정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의식 수준에서 일어나는 지각 작용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다시 갖추게 됨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실제로 후대 문헌에서 확인되는데, 『東醫寶鑑』『眼의 <目者肝之竅>』에서는 『內經』의 문장을 축약하여 “人臥血歸於肝”과 “肝受血而能視.”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여하였다.⁷⁵⁾ 뿐만 아니

74)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6. “故陽氣者, 一日而主外, 平旦人氣生, 日中而陽氣隆, 日西而陽氣已虛, 氣門乃閉. 是故暮而收拒, 無擾筋骨, 無見霧露, 反此三時, 形乃困薄。”(『素問生氣通天論』)

75) 許浚 著, 한국한의학연구원 刊. 내손안에 동의보감 원문 강독편. 경기. 수퍼노바. 2017. p.218. “人臥則血歸於肝, 肝受血而能視. 《內經》”

라 병리적 해석에서도 나타나는데, 안과 병증인 外障 중 ‘血灌瞳人’에 대해 “肝氣가 닫혀 血이 돌아가는 바가 없어 발병한 것이므로, 마땅히 血을 이끌어 肝으로 彙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⁷⁶⁾ 本草 중 냉이[薺菜]의 효능에 대해서도 “血을 이끌어 肝으로 돌려보내니 눈을 밝게 한다.”고 설명한 부분에서 시력과 “血歸於肝”的 관계를 언급하였다.⁷⁷⁾

결국 입면과 각성 자체는 陽氣의出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수면의 주된 목적을 구현하는 핵심 작용은 혈의 회귀, 즉 “血歸於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수면 중의 “血歸於肝”을 통해 血의 정비가 일어나야 수면이 종료된 이후의 각성 상태에서의 陽氣의 작용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수면의 유지, 또는 수면의 질과 관련된 문제는 肝과 血의 개념 간 관련성을 통해 다루어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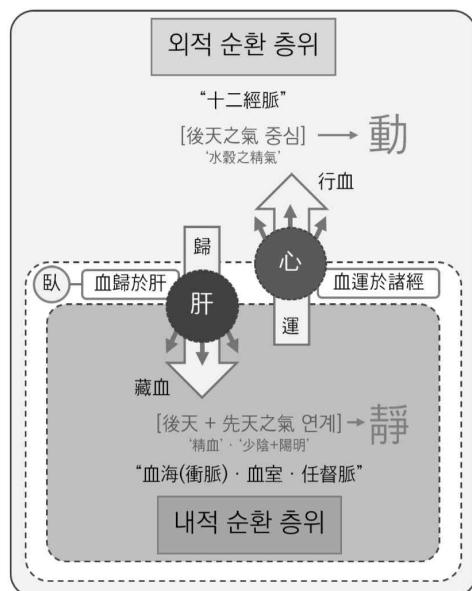


그림 1. 血의 内외 순환 층위

76) 許浚 著, 한국한의학연구원 刊. 内손안에 동의보감 원문 강독편. 경기. 수퍼노바. 2017. p.223. “瞳人爲血灌注, 痛如錐刺, 皆無瞼膜, 視物不明, 由肝氣閉, 血無所歸而得, 宜引血歸肝. 宜服通血元·車前散. 《得效》”

77) 許浚 著, 한국한의학연구원 刊. 内손안에 동의보감 원문 강독편. 경기. 수퍼노바. 2017. p.729. “能引血歸肝, 明目.”

III. 考察

1. 血 순환 층위 구분에 따른 질적 차이

血은 그것이 순환하는 내외 층위에 따라 각각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각 층위의 혈에 연계되는 생명요소들의 종류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록 血의 개념은 하나이지만 층위에 따라 상당히 다른 질적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외적 순환의 주된 경로인 十二經脈은 中焦에서 기원한 後天의 水穀之精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혈, 또는 營氣를 운반하는 체계이며, 여기를 순행하는 血은 『靈樞本藏』에서 명시한 “濡筋骨, 利關節” 등으로 대표되는 유형적이고 직관적인 생리 기능을 담당한다. 『素問·五臟生成』에서 언급한 “足受血而能步, 掌受血而能握”과 같이 몸의 운동 기능도 이 층위의 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처럼 血의 외적 순환은 현실 속에서 쉽고 직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한의학에서 이미 분명히 인식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주로 몸 각 부위에 물질을 공급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서양의 학의 ‘혈액(blood)’ 개념과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즉, 血에 대한 인식이 주로 물질적 성격이 강한 후천지기의 측면에서만 이뤄져 왔고, 이러한 인식의 한계로 인하여 ‘肝藏血’도 ‘혈액의 물질적 저장 및 비축’의 의미로 한정되어 왔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수면[臥] 상태에서 血이 十二經脈으로부터 血海로 회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내적 순환 층위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희박한 편이다. 본론에서는 내적 순환 층위의 血이 성장과 성숙, 2차 성장, 생식과 노화, 몸에 대한 메타적 인지 (metacognition)에 관여한다고 보는 다수의 『內經』篇에서의 언급을 검토하였는데, 이는 내적 순환이 외적 순환과 달리 先天之氣와의 관련성 하에서 작용함을 가리킨다. 아울러 이러한 특성은 衝脈의 流走 노선에서 足少陰腎과의 긴밀한 관련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표상되었다. 새로운 생명의 창조, 그리고 외적 순환 층위에서 일어나는 몸의 유지 기능을 비롯한 높은 수준의 의식의 작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血의 재정비 등 고차원적이고 근원적인 생명 기능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素問·瘡論』, 『素問·骨空論』, 『醫學綱目』 등에서 衝脈(血海)이 少陰만이 아니라 陽明과의 관련성을 함께 가진다고 언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내적 순환 층위의 血이 先天之氣와 연계됨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나, 일반적인 血 생성의 근원인 後天之氣로서의 특성을 전제하는 것이 내적 순환 층위의 血의 작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데에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先天之氣는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력의 창조와 몸의 생성의 원동력으로서 精神의 작용에 해당하며 매우 정밀하고 미세한 작용으로 하므로 그 발현 양상이 無形에 가깝다고 보았고, 後天之氣는 이미 생성된 몸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氣血의 작용에 해당하며 현실의 삶에서 마주치는 외부 세계로 표출하는 힘을 가지므로 그 발현 양상이 有形에 가깝다고 보았다.⁷⁸⁾ 張介賓은 이러한 無形과 有形의 차이로 인해 先天之氣의 인식에 특히 난점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관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생명 현상의 근원을 소급하는 사유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⁷⁹⁾

이러한 先·後天之氣의 특성은 내외 순환 층위에서의 血의 질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내적 순환 층위의 血에 대한 학계의 인식이 회복하였던 이유에 대한 일정 수준의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외적 순환 층위와 내적 순환 층위는 순환의 측면에서는 대칭적인 위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기능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先天之氣에 연계되는 내적 순환 층위는 외적 순환 층위에 비해 보다 근원적인 자리에 놓여 있음을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先天之氣의 작용은 결국 몸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이므로, 그 발현 과정에서는 後天之氣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이 바로 내적 순환 층위가 後天의 血과 先天의 精이 결합하는 양상으로 설명되는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내적 순환 층위의 血은 생명의 바탕인 先天의 생명력과 그것을 현실에 발현하기 위한 힘을 가진 後天의 생명력이 결합하는 복합적인 위상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2. “人臥血歸於肝”과 ‘肝藏血’의 의미 비교

肝이 血을 주관하는 관계성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人臥血歸於肝”과 ‘肝藏血’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 분명하지만, 두 명제가 정확히 같은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血의 내외 순환 체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두 명제의 의미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肝藏血’의 ‘藏’은 血이 肝으로 회귀한 이후 肝에 의해 일어나는 血에 대한 관리·재정비 과정에 초점을 둔 표현이다. 애초에 ‘藏’이라는 글자의 뜻은 미래의 활용을 위하여 거두어 간직한다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단순한 물질적 비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肝藏血’의 ‘藏’ 역시 새로운 외적 순환을 시작하기 위한 내적 준비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 “人臥血歸於肝”은 血이 외적 순환을 마치고 내적 순환으로 회귀하는 층위 간 전환에 초점을 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歸’는 外에서 内로의 전환을 ‘근원적 자리로의 복귀’라는 의미로 바라보고 있음을 함축적으로 제시하며, ‘人臥’는 수면과 각성 상태의 대비를 통해 ‘肝藏血’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따라서 “人臥血歸於肝”은 시간적으로는 수면과 각성을, 공간적으로는 외적 순환과 내적 순환의 구분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血의 전체 순환 구조 속에서 내적 순환이 갖는 의미를 드러내어 주며, 이를 통해 전체 순환의 차원에서 ‘肝藏血’의 위상과 의의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을 가능하게 해준다.

78) 張介賓 著,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78. “凡人之陰陽, 但知以氣血臟腑寒熱爲言, 此特後天有形之陰陽耳, 至若先天無形之陰陽, 則陽曰元陽, 陰曰元陰. 元陽者, 卽無形之火, 以生以化, 神機是也, 性命係之, 故亦曰元氣. 元陰者, 卽無形之水, 以長以立, 天癸是也, 強弱係之, 故亦曰元精. 元精元氣者, 卽化生精氣之元神也, 生氣通天, 惟賴乎此.”(『景岳全書』「傳忠錄陰陽篇」)

79) 張介賓 著,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78. “其在人身, 是卽元陰元陽, 所謂先天之元氣也, 欲得先天, 當思根柢. …… 夫有形者, 迹也, 盛衰昭著, 體認無難, 無形者, 神也, 變幻倏忽, 挽回非易.”(『傳忠錄陰陽篇』)

3. ‘臥’ 개념의 확장

“人臥血歸於肝”은 ‘臥’와 “血歸於肝”을 조건과 결과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생명 현상 속에서 양자의 관계는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臥’와 “血歸於肝”的 관계가 드러내는 다양한 모습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정 정도의 신체적 피로가 발생한 경우 몸이 스스로 휴식을 필요로 하여 각성 중에도 수면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⁸⁰⁾ 『靈樞·口問』에서는 잦은 하품[數欠]이 일어나는 기전을 설명하였는데, 阴陽氣가 서로 위아래로 氣를 당기는 과정에서 유발된다고 하며, 그러나 阴氣가 결국 盛하게 되면 잠에 든다고 설명한다.⁸¹⁾ 陽氣가 외부를 향한 의식 작용을 상징한다면, 阴氣는 기운을 하강·잠장시키며 몸을 정적인 상태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阴氣가 盛해진 것은 몸 전체가 정적인 상태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血歸於肝”的 방향성과 상응한다. 이는 수면이 血의 회귀를 유도한다는 “人臥血歸於肝”的 서술과는 반대로, 血이 회귀하는 흐름 자체가 졸음을 촉발하는 기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로 생리적 기전을 설명하는 “人臥血歸於肝”的 서술과 달리, 실제 임상에서는 수면 상태에 들어가더라도 정상적인 血의 회귀가 이루어지지 않는 병리적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東醫寶鑑』『夢』에서는 “人臥則血歸於肝, 今血不靜, 臥不歸肝.”⁸²⁾이라 하여, 血이 고요하지[靜] 않을 경우에는 비록 수면을 취하더라도 血이 정상적으로 회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血不靜”은 血熱이나 瘀血과 같이 血 자체에 병리적 요인이 개입된 상태를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수면을 취하더라도 이러한 병리적 요인의 존재로 인해 血의 정상

적인 회귀 및 藏血 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로 볼 때, ‘臥’는 “血歸於肝”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한 조건일 뿐 충분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⁸³⁾

나아가 소모된 血이 “血歸於肝” 또는 ‘藏血’을 통해 적절히 회복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리적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素問·宣明五氣』에서 제시된 “五勞所傷” 가운데 “久視傷血”⁸⁴⁾은 장시간 지속되는 시각적 자극으로 인해 血이 손상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內經』에서 눈[目]의 기능이 의식 작용 전반을 상징적으로 대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의 ‘視’도 단순한 시각 활동을 넘어 각성 상태에서 작동하는 모든 시각 활동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久視’는 장기간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식이 충분히 이완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久視傷血”은 반복된 수면 부족으로 인해 “血歸於肝”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결과 血이 회복되지 못한 채 손상되는 병리적 기전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臥’와 “血歸於肝”的 관계를 보다 폭넓게 고찰하면, ‘臥’의 개념 역시 협의의 범주를 넘어 확장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臥’를 단순한 ‘수면’으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앞서 논의한 관계성을 고려할 때 ‘臥’는 졸음의 발현, 수면으로의 이행 시도, 얇은 수면 상태, 휴식 또는 명상과 같이 신체가 상대적으로 정적인 상태로 전환되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본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臥’는 血이 내적 순환 충위로 회귀하여 정미로운 先天之氣와 원활

80) ‘졸음’을 느끼는 경우이다.

81)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58. “陽引而上, 隅引而下, 隅陽相引, 故數欠, 陽氣盡, 隅氣盛, 則目瞑, 隅氣盡而陽氣盛, 則寤矣.”(『靈樞·口問』)

82) 許浚 著, 한국한의학연구원 刊. 내손안에 동의보감 원문 강독편. 경기. 수파노바. 2017. p.118. “人臥則血歸於肝, 今血不靜, 臥不歸肝, 故驚悸而不得臥也.”(『夢』 <臥不安>)

83) 앞서 본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입면 과정은 陽氣가 내부로 수렴되어 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에 힘입어 일어나지만, 수면의 질의 유지는 血의 정상적인 회귀 여부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血不靜”은 血의 정상적인 회귀를 저해하여 수면의 질의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4)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92. “五勞所傷, 久視傷血, 久臥傷氣, 久坐傷肉, 久立傷骨, 久行傷筋, 是謂五勞所傷.”(『素問·宣明五氣』)

하게 연계되기 위해 필요한 정적인 몸 환경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반드시 염밀한 의미의 수면 상태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변화는 “血歸於肝”을 촉진하는 요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臥’는 의식의 지각 작용이 약화되면서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감소하고, 그 결과 신체가 보다 정적인 상태로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론의 명료성을 위해서는 협의의 정의가 유용하지만, 복잡다단한 생명 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광의적 해석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4. “人臥血歸於肝”的 임상적 활용 사례

“血歸於肝”의 이론은 임상에서 실제로 병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치료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활용되어 왔다. 우선 『傷寒論』에서 기술한 热入血室證은 血의 내외 순환 층위에 대한 의미 맥락을 전면적으로 활용하여 痘機와 治法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热入血室證은 말 그대로 傷寒으로 인해 발생한 热의 邪氣가 月經을 전후해 血室로 깊이下陷하여 鬱滯된 채 배출되지 못하고 특이한 병태를 나타내는 병증으로 설명된다. 成無己는 『傷寒明理論』에서 ‘熱入血室’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血室’ 개념을 설명하였다. 血室은 經脈을 흐르는 營血이 모여 머무는 장소로서 ‘十二經之海’인 衝脈과 같은 개념이라고 명시하였는데,⁸⁵⁾ 이러한 인식은 앞서 논의한 내적 순환 층위에 대한 인식과 일치한다. 이미 热入血室證의 痘機 인식에서 ‘經脈을 순환하는 營血’과 ‘血海의 血’의 내외 구분을 전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热入血室證의 기전은 내적 순환 층위의 血에 热邪가陷入된 이후, 외적 순환 층위로 발산되지 못한 채 남아있으면서 내적 순환 층위에서 血의 회

귀 및 藏血의 작용을 저해하여 일련의 증후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증후의 발현 양상에서도 내부 순환 층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생식 기능과 관련된 여성의 월경을 계기로 병증이 유발된다는 점은, 내부 순환이 일시적으로 약화되는 상황과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증후에서 특징적으로 야간의 謳語⁸⁶⁾가 나타난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만하다. 謳語가 의식에 관련된 증상이라는 점, 그리고 병소인 血室의 특성과 더불어 수면이 이루어지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조건을 고려할 때, 의식 작용과 연계된 血의 기능이 내적 순환 층위에서 교란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熱入血室證의 治法 역시 이러한 痘機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痘機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적 층위로부터 외적 층위로 전환을 시도해야 하는데, 肝이 주관하는 血의 정상적인 회귀를 돋는 한편, 정반대의 흐름을 창출하는 膽의 기능을 활용하였다. 이에 『傷寒論』에서는 크게 鍼과 藥의 두 방면의 치료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期門穴을 취하여 氣의 鬱滯를 제거하도록 한 것인데,⁸⁷⁾ 期門穴은 肝經의 募穴이므로 肝의 울결을 직접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小柴胡湯을 사용하여 少陽의 邪를 外散하도록 한 것인데,⁸⁸⁾ 小柴胡湯의 王藥인 柴胡는 肝氣를 條達하게 하고, 肝膽經으로 작용하여 少陽의 邪를 발산시킨다.⁸⁹⁾ 두 治法은 謂慮를 주관하는 肝과 決斷을 주관하는 膽의 상호 의존적인 表裏 관계를 활용하여 내외 순환 층위 사이의 폐색을 소통해내는 데에 주안

86) 文濬典 外 6人.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6. p.309. “婦人傷寒發熱，經水適來，晝明了，暮則譴語，如見鬼狀者，此爲熱入血室。無犯胃氣及上二焦，必自愈。”

87) 文濬典 外 6人.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6. p.307. “婦人中風，發熱惡寒，經水適來，得之七八日，熱除而脈遲身涼，胸脇下滿，如結胸狀，譴語者，此爲熱入血室也。當刺期門，隨其實而取之。”

88) 文濬典 外 6人.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6. p.308. “婦人中風，七八日，續得寒熱，發作有時，經水適斷者，此爲熱入血室。其血必結，故似如癟狀，發作有時，小柴胡湯主之。”

89) 전국한의과대학 본초학 교수 편저.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21. p.187.

85) 張國駿 主編. 成無己醫學全書(傷寒明理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8. “傷寒熱入血室，何以明之。室者屋室也，謂可以停止之處。人身之血室者，榮血停止之所，經脈留會之處，即衝脈是也。衝脈者，奇經八脈之一脈也，起于腎下，出于氣衝，並足陽明經，挾臍上行至胸中而散，爲十二經脈之海。”

점을 둔 전략으로 이해된다.

홍미로운 점은 热入血室證은 血分의 痘임에도 불구하고, 그 治方인 小柴胡湯에는 직접적으로 血分에 작용하는 약물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⁹⁰⁾ 热入血室證이 비록 血分이 중심인 병증이지만, 血 자체가 아닌 내외 충위 간 순환을 회복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血의 회귀를 주관하는 肝과 氣機를 소통시키는 膽을 통해, 热로 인해 鬱滯·閉塞된 내적 순환 충위의 血이 외적 순환을 전개할 수 있는 길을 터줘 내적 순환과 외적 순환의 전환을 회복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한편, ‘血必結’⁹¹⁾, ‘血結胸’⁹²⁾ 등 热入血室證에서 나타나는 血의 결체 양상에 대한 논의는 瘰血 병기와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热이 내적 순환 충위로 下陷되면 血의 회귀 및 藏血의 작용을 저해하여 점차 血의 결체가 심화됨으로써 결국 瘰血 병기로 이행하게 된다. 이에 후대 의가들은 肝膽을 매개로 한 충위 간 전환을 중시하는 기준 治法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桃仁·紅花生地黃·牡丹皮 등 血分에 작용하는 약물을 加味⁹³⁾⁹⁴⁾⁹⁵⁾하여 임상적 효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⁶⁾

熱入血室證 외에도 “血歸於肝” 이론의 맥락에서 다양한 병증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

인다. 앞의 논의 과정에서 간단히 살펴 본 수면 관련 질환이나 안과 질환, 热入血室을 비롯한 여성 질환, 그리고 비강출혈[衄血]⁹⁷⁾과 같은 출혈의 기전도 “血歸於肝” 이론을 통해 설명되기도 하였다.

當歸라는 本草의 명명, 热入血室을 비롯한 여성 질환의 사례에서도 이 이론이 그대로 활용된 모습을 볼 수 있다. 補血의 효능으로 대표되어 병리적으로 血分과 관련된 모든 병증에 활용되는 当歸는 그 이름에 ‘歸’가 들어간 것에서도 추론할 수 있듯이, 그 명칭이 “血歸於肝”的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易水學派의 本草學 성과를 모은 『湯液本草』에서는 当歸을 “氣血昏亂, 服之即定, 有各歸氣血之功, 故名當歸.”라고 하여 ‘氣血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효능이 있으므로 当歸라고 이름지었다’고 밝혔다. 또한 心, 脾, 肝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면서 ‘肝藏血’의 작용을 함을 언급했는데,⁹⁸⁾ 이 역시 “血歸於肝”과의 관련성 하에서 그 효능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임상적 사례들은 “血歸於肝”이 오랜 기간 유용한 임상적 통찰을 제공해 온 이론임을 보여줄 뿐 아니라, ‘肝藏血’의 실제적 함의를 규명하는데에도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血歸於肝”이라는 명제는 한의학의 전통적 임상 사유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현대 임상에서 血과 관련된 병증의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도 여전히 유효한 함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IV. 結論

본 논고는 한의학에서 血 개념, 특히 ‘肝藏血’에 대한 이해가 주로 물질적 기능에 한정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90) 柴胡, 黃芩, 人蔘, 半夏, 甘草, 生薑, 大棗

91) 許浚 著, 한국한의학연구원 刊. 内손안에 동의보감 원문 강독편. 경기. 수퍼노바. 2017. p.406. “熱入血室, 其血必結而不行。(雜病篇寒.)”

92) 許浚 著, 한국한의학연구원 刊. 内손안에 동의보감 원문 강독편. 경기. 수퍼노바. 2017. p.406. “婦人傷寒發熱……如熱除而脈遲, 身涼胸膈下滿, 按之痛者, 謂之血結胸。(雜病篇寒.)”

93) 許浚 著, 한국한의학연구원 刊. 内손안에 동의보감 원문 강독편. 경기. 수퍼노바. 2017. p.287. “瘀血, 必歸肝經. 腸夜痛, 或午後發者, 小柴胡湯, 合四物湯, 加桃仁·紅花乳香沒藥.”

94) 許浚 著, 한국한의학연구원 刊. 内손안에 동의보감 원문 강독편. 경기. 수퍼노바. 2017. p.406. “婦人傷寒發熱……活人書云, 小柴胡湯, 加生地黃主之。(雜病篇寒.)”

95) 許浚 著, 한국한의학연구원 刊. 内손안에 동의보감 원문 강독편. 경기. 수퍼노바. 2017. p.406. “熱入血室, …… 小柴胡, 加牡丹皮桃仁, 或小柴胡合四物湯主之。(雜病篇寒.)”

96) 『和劑局方』의 逍遙散 또한 柴胡를 기본으로 하여 當歸와 茯苓 등 血分藥을 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热入血室의 治法을 반영한 처방으로 이해될 수 있다.

97) 許浚 著, 한국한의학연구원 刊. 内손안에 동의보감 원문 강독편. 경기. 수퍼노바. 2017. “香附開鬱行氣, 使邪火散於經絡. 川芎和血通肝, 使血歸於肝藏. 血歸火散, 其血立止. 《入門》(內景篇血.)”

98) 王好古 著, 盛增秀 主編. 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p.30. “入手少陰, 以其心生血也, 入足太陰, 以其脾養血也, 入足厥陰, 以其肝藏血也。(『湯液本草』)”

자 『素問·五藏生成』의 “人臥血歸於肝”을 중심으로 그것이 놓여 있는 의미 관계망(semantic network)을 정밀하게 검토하였으며, 王冰이 ‘肝主血海’를 중심으로 제시한 주석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해당 구절이 血의 다층적 순환 구조를 조작하는 핵심 개념 축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의 해석을 먼저 정리하고, 이어 ‘血海’, ‘歸’, ‘臥’, ‘肝’ 등 핵심 개념들을 문헌적으로 분석함으로써 血이 단순히 신체를 따라 흐르는 물질적 요소가 아니라 다양 한 생명 현상 층위에 관여하는 복합적 실체임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血은 공간적으로 내부와 외부를, 기능적으로는 先天과 後天을 오가며 각기 다른 작용을 수행하는 중층적 위상을 지닌 실체임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肝은 十二經脈으로 대표되는 의적 순환에서 활동한 血이 血海·衝脈의 내적 순환 층위로 돌아가 정비되는 과정을 주관한다. 특히 “血歸於肝”的 ‘歸’는 血이 단순히 肝에 물질적으로 저장(storage)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순환에서 소모된 血이 다시 내적 순환 층위로 회귀하여 先天之氣와의 연계를 통해 정미로움을 회복하고 새로운 순환의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血의 순환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소모와 회복이 반복되는 질적 변화의 과정임이 드러난다.

이러한 전환 과정은 肝의 藏象과도 긴밀하게 부합한다. 『內經』에서 肝의 藏象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치밀한 준비 단계를 통해 외부의 역동적인 상황으로 나아가는 패턴으로 묘사되며, 이는 외적 순환을 마친 血이 회귀하여 재정비를 거친 뒤 다시 발현될 힘을 갖추는 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더불어 이러한 회귀는 ‘臥’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분명하게 작동하는데, 수면 시 의식 활동이 정지하고 陽氣가 내향함으로써 血이 자연스럽게 내부 순환 층위로 회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血歸於肝”的 구조적 이해는 문헌 해석을 넘어 임상적 사고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한의학의 임상적 기술 가운데에는 血이 여러 생명 현상 층위를 오가며 변화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병증을 해석하거나 治法을 구성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은 이러한 전통적인 임상적 사유를 이해하기 위한 바탕을 제공하고, 나아가 현대 임상에서 다양한 병증을 이해하고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데에도 유의미한 이론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 연구는 『黃帝內經』과 그 주석서에 기반한 문헌 고찰에 국한되어 있으며, 清代 이후 새롭게 전개된 瘀血 이론이나 현대 서양의학의 병증들과의 직접적 연계를 제시하는 데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향후에는 다양한 시대의 의학 문헌과 임상 자료를 아우르는 연구를 통해 血 개념의 다층적 작용을 보다 확장된 맥락에서 해석하고, 이를 현대의학의 생리적·병리적 기전에 연계하여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素問·五藏生成』의 “人臥血歸於肝”을 단초로 삼아 ‘肝藏血’의 이면에 자리한 의미관계망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의학적 사유에 전제되어 있는 血의 다층적 작용과 층위 간 전환 구조를 보다 분명히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한의학 고유의 사유 체계가 형성해 온 의미관계망 속에서 개념의 의미와 역할을 정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새로운 해석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나아가 이러한 접근은 血을 비롯한 주요 생리 개념들을 단순한 정태적 기능으로 환원하지 않고, 여러 의미 층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태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한의생리학의 핵심 개념들을 보다 실질적이고 유의미하게 정립하려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薑婧. 宋以前 “肝藏血” 文獻的研究與臨床意義. 2013. 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 高思華, 王鍵 共主編. 中醫基礎理論(第2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2.
3. 김인락. 肝者 罷極之本에 對한 五行論의 解釋.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9. 8.

4. 劉可佳, 徐帥, 李娟娟, 劉寶山, 趙靜潔. 基於“人臥血歸於肝”探討睡眠障礙對代謝相關脂肪性肝病的影響. 陝西中醫. 2023. 44(6).
5. 류정아, 정창현. 奇恒之腑와 奇經八脈의 관련성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4. 27(2).
6. 李紅專, 史恒蔚, 張敏, 馬同, 許偉, 李彥強, 張永健. 基於“惡血歸於肝”理論的鐵蓄積與絕經後骨質疏松症的關係探討. 時珍國醫國藥. 2021. 32(7).
7. 文濬典 外 6人.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6.
8. 박찬국.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파주. 집문당. 2005.
9. 房克英. “肝藏血主疏泄”的現代文獻研究. 2013. 北京中医药大学 硕士学位论文.
10. 孙广仁, 郑洪新 共主编. 中医基础理论(第3版). 北京. 中国中医药出版社. 2012.
11. 안진희, 신상원, 윤은경. 『素問·靈蘭秘典論』의 “肝者, 將軍之官, 謂慮出焉.”에 대한 고찰 - 肝의 기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0. 33(1).
12. 楊芳豔, 陳鋼, 柏琳娜, 張建偉. 《黃帝內經》“肝生血”機制探析. 中華中醫藥雜志. 2017. 32(10).
13. 유윤조. 대사에 있어서 血의 순환에 대한 통합의학 이론 소고.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24. 38(5).
14. 정창현. 『素問·骨空論』의 “並少陰之經”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1).
15. 趙先陽, 方朝暉. 從“人臥血歸於肝”論治不寐 臨床經驗. 臨床中醫雜志. 2018. 30(12).
16. 陳明. “肝藏血”小議. 國醫論壇. 1995.(6).
17. 黃金鳳, 皮立宏. 從“人臥血歸於肝”理論探討 睡眠對慢性肝病治療的意義.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2016. 14(2).
18. 樓英. 編撰. 陳柱杓 註釋. 醫學綱目. 서울. 法仁文化社. 2010.
19. 王冰 注.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15.
20. 王好古 著, 盛增秀 主編. 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21. 張介賓 原著. 李南九 懸吐註釋. 懸吐註釋類經. 서울. 범인문화사. 2006.
22. 張介賓 著,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78.
23. 張介賓 著. 欽定四庫全書44(類經圖翼). 서울. 대성출판사. 1995.
24. 張介賓. 類經圖翼(附類經附翼). 서울. 成輔社. 1982.
25. 張國駿 主編. 成無己醫學全書(傷寒明理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26. 章楠 編注. 方春陽, 孙芝斋 點校. 醫門棒喝三集(靈素節注類編).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27. 張保春 編著. 中醫基礎理論. 北京. 學苑出版社. 2009.
28. 張志聰 著. 孙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14.
29. 전국한의과대학 본초학 교수 편저. 本草學. 서울. 永林社. 2021.
30.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동의생리학. 원주. 의방출판사. 2024.
31. 전국한의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 편저. 침구학(상). 서울. 집문당. 2007.
32. 朱震亨 撰. 丹溪醫集(第2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33. 何曉暉 主編. 中醫基礎理論(第2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0.
34. 한의병리학 교재편찬위원회 編著. 한의병리학. 서울. 한의문화사. 2017.
35. 許浚 著, 한국한의학연구원 刊. 내손안에 동의보감 원문강독편. 경기. 수퍼노바. 2017.
36.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37.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38.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 네이버 주식회사.

1999. [cited on July 06, 2025] ; Available
from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7316&cid=51007&categoryId=51007>